국별 리포트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9

Ⅴ. 종합 의견 ····· 11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Ⅰ. 일반개황

면 적	756천 km^2	G D P	2,641억 달러 (2014년)
인 구	17.7백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14,911 달러 (2014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Peso (Ps)
대 외 정 책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570 (2014년)

□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인접하고 있음. 남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편임.

□ 구리(세계 1위), 리튬(1위), 요오드(2위), 몰리브덴(3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함. 특히 구리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1/3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GDP의 약 15%, 총수출의 약 50%로 높음.

□ 정부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기준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임.

□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두번째 OECD 회원국으로, 2012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결성하여 중남미 신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 제 성 장 률	5.7	5.8	5.5	4.2	2.0
재 정 수 지 / G D P	-0.4	1.4	0.7	-0.7	-1.8
소비자물가상승률	1.4	3.3	3.0	1.8	4.4

자료: IMF.

□ 광물수출 부진, 투자·소비 동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 2%대로 둔화

○ 중남미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구리 등 광물 수출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0~11년 기간 동안 2010년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따른 복구사업 실시, 우호적인 원자재 가격 및 안정적 정치·경제 구조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 기준, 칠레 69.5%, 중남미 평균 46.0%

○ 그러나 2012년부터 구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둔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구리가격 하락 지속, 정부의 조세·노동 개혁 움직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비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0%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14.4%('11년)→ 12.2%('12년)→ 0.4%('13년)→ 1.8%('14년 추정치)

□ 2011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해왔으나, 2014년 적자전환 추정

○ 총재정수입 중 구리수출 관련 재정수입은 약 10%로 재정수지가 광업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칠레 정부의 구조적 재정흑자준칙(fiscal surplus rule)* 운용 등 신중한 재정정책에 힘입어 2004~12년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옴.

*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을 1%로 유지하여,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제고

○ 2013년에는 교육부문 지출 확대, 대선을 앞둔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GDP 대비 0.7%)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에는 구리수출 축소에 따른 관련 세수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8%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칠레 정부는 교육부문 등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14년 세재 개혁을 단행하는 등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기준금리 인하, 환율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3.2% 전망

○ 칠레 중앙은행은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리 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를 3%±1%p로 설정하고 있음.

○ 2010~1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 채소를 비롯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관리목표 수준을 초과한 4.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중앙은행은 2013년 10월(5.0%→ 4.75%)부터 2014년 10월까지 8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광업의존도로,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취약

○ 광업이 재정, 수출, 투자 등과 관련하여 경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 총고정자본형성(GFCF)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15%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26%까지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광업투자 비중 역시 1976~2007년 연평균 2.5%에서 2008~12년 연평균 4.7%로 증가함.

○ 한편, 최근 몇 년간 구리를 비롯한 광물가격 하락추세*가 지속되어 민간투자율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칠레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IMF는 구리가격이 약 10% 하락할 경우 향후 2년간 칠레의 GDP가 약 0.8%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함.

* 구리가격 추이(1파운드 당): 342센트('10년)→ 400센트('11년)→ 361센트('12년)→ 333센트('13년)

□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소량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전력부족 경험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매장량이 소량에 불과하여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리적 특성으로 송전 효율성도 낮은 편에 속하여,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발전원 구성은 화력 66.9%(석탄 45.8%, 천연가스 16.7%, 원유 4.4%), 수력 28.4%, 신재생(수력 제외) 4.7%임.

○ 칠레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수급, 탄소배출세 도입(2017년 예정) 등을 감안하여 통해 기존 석탄 중심의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구리, 아연, 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

○ 구리(세계 1위), 리튬(1위), 요오드(2위), 몰리브덴(3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며, 동 자원들이 지표면 가까이에 매장되어 있어 채산성도 갖추고 있음.

- 특히, 구리 매장량의 경우 2014년 기준 2.1억 톤(Metric tons)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2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5.8백만 톤으로 세계 1위(31.0%) 규모임.

○ 다만, 광산 노후화, 높은 임금 및 에너지 비용, 환경파괴와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은 광물개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광업 부문의 높은 임금상승률(약 8%), 전력 부족 등으로 구리의 1 파운드당 생산비용은 1.49달러로 인근국인 페루(0.88달러)보다 높은 수준임.

□ 발달된 금융시스템으로 외부충격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낮은 편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uncil)의 관리 하에 안정적 금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은행·연금·보험 각각의 감독기관(SBIF, SAFP, SVS)을 두어 적극적인 관리·감독체제를 갖추고 있음.

- 2013년 기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은 13.0%로 BIS 기준(8%) 이상이며, 수익률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1.5%, 18.4%로 안정적임. 또한 부실채권 비율도 2.1%로 낮은 등 주요 금융지표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2년 금융발달보고서에 따르면 칠레는 조사대상 62개국 중 종합순위 29위(중남미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금융안정성 부문에서 세계7위를 기록함.

○ 또한 양호한 거시경제지표, 금융시장 내 높은 연기금 비중 등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외부충격 발생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은 낮은 편임.

다. 정책성과

□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중남미 3위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투명한 정부정책, 우호적 투자환경, 건전한 거시경제지표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2013년 기준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등극함.

- 대 페루 FDI 유입액은 2002년 2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155억 달러로 급증한 후 2012년 사상 최대 규모인 285억 달러를 기록함.

- 2015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보고서, 2014-15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칠레는 각각 41/189위, 33/144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지출 확대

○ 교육의 접근성 차이는 계층간 이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칠레 정부는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을 확대(GDP 대비 비중: 2000년 3.7%, 2012년 4.2%)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지니계수는 2000년 55.2에서 2012년 50.8로 낮아졌으나, OECD(31.3) 및 라틴아메리카 6개국* 평균(48.5)보다 높은 수준임.

*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2014년 법인세 인상(2014년 20%, 2015년 22.5%, 2018년 25~27%), 기업의 재투자 이익에 대한 면세제도(FUT) 점진적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교육비 지원, 관련 인프라 정비 등에 지출할 예정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상수지	3,581	-3,070	-9,081	-9,485	-4,851
경상수지/GDP	1.6	-1.2	-3.4	-3.4	-1.8
상품수지	15,737	11,039	2,507	2,117	8,555
수출	71,109	81,438	77,965	76,684	76,647
수입	55,372	70,399	75,458	74,567	68,092
외환보유액	27,816	41,932	41,636	41,084	40,443
총외채잔액	84,452	98,418	117,569	130,724	142,000
총외채잔액/GDP	38.8	39.2	44.1	47.2	55.5
D.S.R.	12.3	19.5	14.9	16.3	19.2

자료: IMF, EIU, IIF.

□ 원자재 가격 하락, 국내 광물생산 축소로 상품수지 적자 큰 폭으로 확대

○ 구리(2013년 기준 총수출의 52.4%, GDP의 14.5%)를 주로 수출하고, 중간재, 자본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광물생산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호조 등으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옴.

○ 다만, 구리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2년에는 구리수출이 감소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2013년 21억 달러로 축소됨.

○ 2014년에는 구리 수출둔화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국내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 흑자는 86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지 적자 축소로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감소

○ 상품수지,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GDP의 약 5.5%)로 2011년부터 경상수지는 적자를 누적하고 있음.

○ 2013년에는 경상이전수지 흑자(22억 달러→ 24억 달러)가 확대됨에도, 상품수지 악화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2014년에는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다시 1%대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해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4개월분 이상

○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2014년 외환보유액 규모는 404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4개월분 이상을 유지하는 등 풍부한 외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3년 바첼레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교체에 성공

○ 2013년 11월 중도좌파연합(Nueva Mayoria)의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전 대통령(2006~10)이 대선에서 승리(임기 4년)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또한 동월 이루어진 총선에서 여당이 상원 21/38석, 하원 68/120석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정치적 기틀이 마련됨.

○ 그러나, 최근 바첼레트 대통령의 아들인 다발로스(Sebastián Dávalos)와 관련된 부정부패 스캔들로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속되고,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어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대통령 지지율(Adimark GfK): 58%('14.6월)→ 49%('14.8월)→ 45%('14.10월)→ 40%('14.12월) → 39%('15.2월)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폭탄테러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 다소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안정적 수준

○ 2014년 9월 수도 산티아고의 에스쿠엘라 밀리타르(Escuela Militar) 지하철역에서 가해진 폭탄테러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를 중심으로 2014년 30차례의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함.

○ 칠레 정부는 에스쿠엘라 밀리타르 지하철역 사건을 1990년 군사 독재 정권 종식 이래 최악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기관의 권한강화, 반(反) 테러법 적용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동 테러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다소 확산되었으나,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3. 국제관계

□ 중남미 지역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한편, 볼리비아와의 영토분쟁은 지속

○ 칠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창설국인 동시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준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중남미 양대 경제블록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지역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편, 볼리비아와는 태평양 전쟁 당시 획득한 태평양 연안지역 영토와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페루와도 태평양 연안지역과 관련하여 영토분쟁이 있었으나, 2014년 1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이후 해상경계가 확정되면서 마무리됨. 그러나 2015년 페루 정부가 자국 해군장교 3명에 대해 군사정보를 칠레로 유출하였다는 스파이 혐의를 제기,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칠레 주재 페루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긴장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있음.

□ 역외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

○ 칠레는 양자간 FTA 체결에 적극적이며, 한국, 미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체결함.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였으며, 여기에 2010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면서 다자간 무역협정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구조, 낮은 연체율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5차례(1965, 1972, 1974, 1985, 1987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동 채무를 전액상환하였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정부의 국채발행 등으로 2014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55.5%로 확대추세이나,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13.4%에 불과함.

- 칠레 정부는 2014년 12월 10년 만기,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3.125%)과 10년 만기 8억 유로(1.745%)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 한편, 2013년 6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97.9억 달러(단기 10.7억 달러, 중장기 87.2억 달러) 중 연체액은 0.2백만 달러에 불과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	(2014. 10.)	2등급	(2013. 10.)
S&P	AA-	(2012. 12.)	A+	(2010. 12.)
Moody's	Aa3	(2013. 10.)	Aa3	(2010. 6.)
Fitch	A+	(2014. 10.)	A+	(2013. 10.)

* 2014년부터 칠레는 OECD 고소득국으로 분류되어 평가대상국에서 제외됨.

○ S&P는 높은 광물 의존도에도 낮은 정부채무 비중*, 정치적 안정성, 대규모 FDI 유입 지속 등으로 2012년부터 동국의 신용등급을 AA-(Stable)로 부여하고 있음.

* 중앙정부 채무비중 추이: 11.1%('11)→ 12.0%('12)→ 12.8%('13)

○ Moody's와 Fitch는 동일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편에 속하나, 견고한 경제성장률 지속, 신중한 재정·통화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각각 Aa3('10.6), A+('11.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후 현재까지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년 4월 18일 (북한과는 1972년 수교, 1973년 단교, 1992년 재개)

□ **주요협정(발효일)**

○ 무역협정(1978), 사증면제협정(1980), 항공협정(1980), 경제기술협력협정(1983), 문화협정(1984), 투자증진및보호협정(1999), 이중과세방지협약(2003), 자유무역협정(2004), 원자력평화이용협력협정(2006),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2008)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 · 칠레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2,469	2,458	2,083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 입	4,676	4,658	4,810	동제품, 동광, 기타금속광물
교역규모	7,145	7,116	6,89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국(2004년 4월 발효)이며, 2014년 기준 중남미 내 제4위 수출대상국이자 제2위 수입대상국임.

○ 대 칠레 교역규모는 2010년 이후부터 7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2014년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수출품목의 수출금액이 10% 이상 감소하면서 교역규모가 69억 달러로 축소됨.

○ 우리나라의 대 칠레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12월말 기준 신규법인 수 66개, 3.7억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함.

- 업종별로는 광업에 대한 투자가 2.5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69.1%)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57백만 달러, 15.4%), 제조업(28백만 달러, 7.5%)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Ⅴ. 종합의견

□ 구리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 정부의 조세·노동 개혁 움직임에 따른 국내 투자위축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2.0%까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구리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대로 악화되었으나, 2014년에는 유가하락, 국내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다시 1%대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 차지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예상됨.

□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낮고, 외채구조도 건전한 편에 속함. 외환보유액의 경우 월평균수입액의 4개월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면, 구리 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우나, 높은 성장잠재력, 정치적 안정성,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칠레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B1으로 부여코자 함.

조사역 김지용(☎02-6255-5716)
E-mail: jyk@koreaexim.go.kr